



시원한 여름날을 그리며 ‘여름날의 꿈’

작가소개

강민구(57)님은 청양읍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다. 청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발굴된 마을미디어활동가를 통해 청양담소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녹음이 진 시원한 폭포 그림을 기고하였다.

지면안내

- 1면 여름날의 꿈
- 2면 종합문화공간, 화성 북카페
- 3면 청어람센터, 주민복합문화공간
- 4면 장곡마을의 아니골/행복(시)
- 5면 삼삼오오, 돌고 돌아 미싱
- 6면 나의 작은 텃밭/마을여행사 청보리(영상)
- 7면 청년 토종 덕후/용세골방의 책소개
- 8면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소식



인터뷰: 화성 북카페



종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작은 도서관을 꿈꾸다



Q 화성 북카페 소개해 주세요.

화성 북카페는 2012년도 화성면 어르신들과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책을 기증받고 구입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했습니다.

Q 연간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책 낭독회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북카페에 모여 책과 함께하는 문화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집에 찾아가 책을 읽어 드렸고 어르신들의 안위를 살피며 화장품·기피제·자운고 등을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며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대출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책들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과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연주자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눈 후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클라이밍을 비롯,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책 속 문화 산책'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화성 북카페의 장점과 비전은?

2021년도 이후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해져서 화성 마을 학교를 위한 공간으로 대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 교육 개념으로 바리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밴드(악단) 등 악기들을 어르신들이 다룰 수 있어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전은 이런 것들을 통해 이곳이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캠핑, 북축제 등을 진행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이 문화적인 영역들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Q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아쉬운 점은 요즘은 책 읽는 것이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멀티미디어와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책보다는 영상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책 아니면 없는 느낌인데, 이제는



책과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영역들을 구상하여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들이 종합 공간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더 세심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모여 '책 읽는 시민 연대' 같은 법인체를 구성하고 지원이 골고루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청양군에서 2022년 12월말 기준, 13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종필 마을기자〉

제호이야기



청양담소는 웃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청양을 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양의 이야기를 담았소의 줄인 말로 청양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주민의 소리를 담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신문으로 마을기자가 만들어갑니다.

청양담소는 계간지로 2023년 04월 봄호, 07월 여름호, 09월 가을호, 11월 겨울호로 발행합니다.

마을기자가 만든 청양담소는 주민들의 기고도 받고 있으니 메일(cymaeul@naver.com)또는 전화 (041-943-99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면에서는 지난 6.15일 <청어람 센터>가 주민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 문을 열었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서 청남면 소재지 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기초생활 거점육성지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청어람이란 뜻은 ‘청’은 청남을, ‘어람’은 우리말로 큰 물고기를 담는 바구니를 의미한다. 풀이한다면 청남면민을 아우르고 품는 곳 <청어람센터>는 옛 청남중학교(1983~2020) 자리로, 폐교 이후 장소가 비어있었는데 청양군에서 매입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청어람 센터는 1층과 다락 층이 있다. 1 층에는 북카페, 주민 사랑방, 키즈 카페, 사무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빨래방이 갖추어져 있다. 다락층에는 청남중 역사관과 소모임실이 있다.

‘북카페’ 벽면 높은 책장에는 수백 권 책들이 꽂아있다. 마치 서울시청도서관을 보는 듯 하다. 이는 청남중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들을 보관해 오다가 이번에 옮겨 놓은 것이다.

‘주민 사랑방’과 ‘소 모임실’은 청남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작은 동아리 모임, 친교 및 회의, 카페를 이용할 때 아늑한 공간인데 수다 떨기 제격이다. ‘키즈 카페’는 엄마, 아빠와 함께 방문할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깔끔한 공간이 놀이터로서 어른들도 뒹굴고 싶어진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학습 자재, 놀이 도구, 체험 용품 등이 채워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실’과 ‘회의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상 장비(빔프로젝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두 공간은 필요에 따라 연결과 단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락 층에는 청남중학교 기념관이 있다. 역대 졸업생 앨범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학교 발간 기록물, 발간 서적 등을 비치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사진과 기록물 자료는 졸업생들에게 기증받아 기록유산으로 남겨야 할 숙제가 있다. 이야기가 있는 기념관, 추억을 회상하는 공간, 감미로운 공간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특별한 것은 빨래방이 있다. 이불 빨래도 가능한 드럼세탁기 2대, 건조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드럼세탁기는 가정용으로 가장 큰 25kg 대용량이다. 이용 요금은 1회 5천 원이다. 시중 가격보다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있다니 인기 대박이다.

주변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야외 종합구장, 공유주방과 조리실이 갖추어져 있다. ‘실내체육관’은 기존 시설물로서 베드민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헬

청남면 새로운 주민복합문화공간

'청어람센터' 문 열다.



스장 옆에는 남, 여 샤워실이 있다. 주민들의 여가 체육 시설로서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야외 종합구장’은 지붕을 덮어 다용도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가로22m*세로 32m미터로 만들었다. 현재는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추가 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리실’과 ‘공유주방’은 새로 리모델링 하였다. 조리실에서는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여성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지역 행사인 청남면 효 잔치, 체육대회가 있을 때, 음식을 만들고 나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가을에는 김장 담그기 행사, 월 1회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과 나눔 봉사, 그리고 제과제빵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 수고한 사람들

청어람 센터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운영되었으며 6월 말까지 활동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애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다. 이후에는 행정절차를 걸쳐 청남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고한 윤희덕 사무장은 “잘 만들어진 시설과 공간에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화합하고 활용할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고생한 추진위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린다.

□ 주민자치회 활용 방안

북카페와 더불어 <작은 도서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주민자치회장 이민구 씨는 “주민들의 독서 모임과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 재능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을 6월 말 농번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적합한 강사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어른들이 출입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웃음꽃 피어나기를 희망한다.



편의 시설 이용 요금이 정해져 있다. 이는 시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때부터 정식 공지하고 운영할 계획이라 한다. 이용 요령과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헬스장은 이용 등록을 하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되나?

상근자가 근무하지 않는 때,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여 이용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은 궁금해한다. 이용 방안이 면사무소와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유일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활용되기를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크다.

그동안 청남에는 방문한 손님을 모시고 갈 커피숍이 없었다. 정산과 부여로 나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청어람센터가 생기면서 주민의 복지와 문화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아이와 함께 청어람 센터를 구경나온 어느 학부모는 너무 반가워 했다. 그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마땅치 않아 인근 부여, 공주로 나가야 했었다. “이런 공간이 마을에 생겨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빨리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한은규 청남면장은 “여러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안정된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민이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귀정 마을기자〉



독자기고

장곡마을 주민이 사랑하는 아니골



제주도 아흔아홉골, 원주시 아흔아홉골, 강원도 아흔아홉골, 칠갑산 아흔아홉골, 여러 곳에 아흔아홉골이 있다. 장곡마을의 아니골 또한 이름이 불리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곡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아흔아홉 개의 골짜기가 백 개의 골짜기가 안 돼 ‘아니골’이 되었다는 설과 아흔아홉골이 ‘아흔골·아흐골·아니골’ 등으로 긴 이름을 줄여 불렀다는 설이 있다.

아니골에는 벼락바위 전설이 있다. 옛날 임금님이 위독한 병에 걸려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장곡사 근처에 사는 어린 처녀를 폭 고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신하의 말에, 아니골에서 조용히 어린 처녀를 폭 고아 먹고 나온 임금에게 하늘이 벼락을 내려 즉사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 자리에 있는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부른다.



6·25전쟁 시, 북한군이 숨어있어도 발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다. 지금도 아니골 숲에 가면 북한군을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장으로 쓰인 장소가 있고 산 중턱에는 헬기장도 있다. 또한 아니골 안에는 작은 동굴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는 미상이다. 자연이 만든 동굴인지도 아

직은 모르겠다. 동굴을 보고 있으면 오묘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자극된다. 거짓말 보태어 말하면 폭염이 와도 아니골 동굴에 있으면 더위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원하다.

칠갑산을 발원하여 흐르는 천이 여러 개 있다. 아흔아홉골에서 발원하는 천은 장곡천이고, 장곡마을은 칠갑산 산줄기에 형성된 긴 마을로 해발고도가 높은 편이다. 장곡천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시냇물이 흐른다. 그러면서 지천에서 까치내천을 지나 백마강으로 합류한다. 지금까지도 아니골 물줄기는 물고기와 물속까지 보일 정도로 오염되지 않았다.

아니골은 칠갑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다. 장곡마을 주민들이 사랑하는 만큼 많은 분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앞서 말한 듯 원시림에 가깝기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할 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취사하지 말고 숲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인은 장곡마을 태생이자 거주하는 사람이다. 성장 과정에는 정말 무료한 곳이었다. 친구들도 다른 마을에 거주하고 마을 속 오락거리, 유형 문화 요소가 없어 집에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생각이 넓어지고 마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마을 산책을 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애착함이 생겼다. 규칙적으로 아니골 방문도 한다. 아니골 안 큰 나무 아래서 아로마오일을 손에 떨어뜨리고 냄새를 흡입한 후 명상을 하는데, 나만의 힐링 포인트이다.

〈김은지(장곡리)〉

※아니골에 대한 유래는 독자 개인의 의견임.





독자기고

삼삼오오 마음을 잇는 ‘돌고 돌아 미싱’

삼삼오오 귀여운 소품을 제작하는 ‘돌고 돌아 미싱’을 소개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청양군지역 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삼삼오오 동아리 공모에 합격하여 아기자기한 소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단하는 법과 재봉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팀원은 한 명도 없지만, 서로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며 작은 소품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돌고 돌아 미싱’ 동아리는 ‘만들기’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모일 순 없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소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삼삼오오 동아리는 저희가 함께 모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재료 구매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초보 제작자에게 재료비는 항상 부담이었는데, 삼삼오오 동아리 보조금 덕분에 부담을 덜고 소품을 제작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지 않거나 해진 옷을 잘라 소품을 제작했습니다. 아직 배워가는 단계이기에 새 원단으로 소품을 제작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원단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지나가고 난 후 실을 뜯어내면 상하기 마련이라, 시작하기도 전에 원단을 버리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삼오오 동아리 지원 덕분에 원단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팀원들이 더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동아리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용할까 고민하던 중, 저희의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소품을 지역 아동 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조 지원금으로 구매한 원단으로 다용도 파우치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 아동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와 생리대 파우치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선물하기 위해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할 마음이 저희의 마음을 잇고 나아가 저희와 아이들의 마음까지 이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천과 천이 맞닿아 이어지듯 저희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망칠 걸 알면서도 원단을 자르고 이어 붙이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실을 감아두는 도구)는 재봉에 있어 천과 천을 이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패를 감고 페달을 밟아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이어 붙인다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돌고 돌아 미싱’의 나누는 내일을 기대해주세요!

〈강은지(청양읍)〉



나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지 않았다. 성장이 더더도 좋으니 잘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나의 작은 애정이 묻었던 기대였다.

6월, 한동안 강렬한 햇볕이 연일 내리쬘었다. 설상가상으로 비도 오지 않았다. 물은 조리개나 호스를 연결하여 주면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나의 반려견 호두였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텃밭을 내달리는 호두만의 길을 피해 작물을 심었는데 운이 나빴던 것 같다.(하하) 상추 종류는 거의 다 호두에게 밟혀 죽어버렸다.

평소에 다니던 길을 내 달렸던 반려견을 혼낼 순 없으니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나를 탓할 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희망적이게도 나에게 미니단호박과 애플수박이 남아 있었다. 미니단호박은 7월 상순부터 수확하는 작물이고 애플수박은 착과 후 30일이 경과 된 시점에 수확할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여름내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맛 정도는 이웃과 나누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작은 희망을 걸어보며 오늘도 나의 작은 리틀포레스트를 가꾸고 나아가려 한다.

작년에 심어 둔 자두나무와 사과나무는 무성하게 과실을 맺고 있다. 작년 자두나무에서 과실을 얻지 못했던 경험에 빗대면 언제나 성공할 순 없는 법이라는 생각을 되뇌는다. 올 한해 나의 상추는 망작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풍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은 텃밭에 도전해보려고 한다.

〈강다솔 마을기자〉

올 한해 이웃과 나누어 먹을 요량으로 상추의 종류인 버터헤드, 로메인, 꽃상추와 미니단호박, 애플수박 모종을 샀다. 또한 나만의 리틀포레스트를 꿈꾸며 작게나마 가꾸고 일구어 성취해 나아가는 기쁨을 느끼기 위함도 있었다.

3일가량 햇빛과 바람을 쏘여주라고 모종 업체는 친절하게 안내하였다. 햇빛과 바람을 쏘고 물도 흠뻑 주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렬했던 탓일까? 모종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느낌이었다. 부랴부랴 집 마당 텃밭 이곳저곳에 모종을 나누어 심었다.

상추 종류는 방풍나물이 있는 곳에 줄지어 나란히 심었고, 미니단호박은 고추모종이 심긴 두둑과 담장 아래, 애플수박은 그늘이 진 향나무 아래에 나란히 심었다.

심을 때까지 만해도 올 한해 나의 텃밭은 성공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텃밭에 거름이 너무 없었던 탓인지 작물의 성장이 더뎠다. 마음속으로는 내심 속상했지만 물 주기와 관심은 끝



청양담소
마을공동체신문

#여름호

청보리

청양에서 놀아보리
청양에서 쉬어보리
청양에서 살아보리

마을영상기획단
임정옥 활동가

마을 여행사 청보리 를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청양담소'

청양군 마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통해 발굴된 임정옥 마을활동가가 제작한 영상기사로, 청양의 곳곳을 소개하는 마을 여행사 '청보리'에서 진행하는 청양여행학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은 QR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청년 토종 덕후, 이원호 농부



귀족서리태, 아주까리 밤콩, 선비잡이콩, 푸르대콩을 아시나요? 낯설고도 재미난 이름의 이 콩들은 모두 토종입니다. ‘토종 덕후’라는 애칭을 붙여주고 싶은, 어딘가 남다른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집요한 호기심, 만 19세에 토종 농부가 되다

그는 어릴 적 방학 숙제로 시장에서 사 온 씨앗에서 이듬해 제대로 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성질이 다음 세대에는 유지되지 못하게끔 종자 회사에서 유전자 개량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토종을 지키는 농부의 꿈을 품게 되었다는 농부. 집요한 호기심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만 19세, 이른 나이에 토종 농부가 되었습니다.

꼭꼭 숨은 토종 100종을 찾기까지

토종 종자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종자 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죠. 이원호 농부는 토종 종자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10번 중 9번은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했지만, 집요함으로 100종이 넘는 종자를 수집하며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약 70종의 토종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보기 힘든 두 조건 #토종 #자연친화농법

‘토종 농사’하면 마치 자연친화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자연친화농법을 고수하는 토종 농부가 특별한 이유죠. 농부는 다른 농가에서 날아오는 농약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일부러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밭을 선택했습니

다.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속상한 날도 많지만,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농사짓습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

이원호 농부는 남들이 볼 때 어려운 길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풀이 무성한 그의 밭을 보고 게으르다고 하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자처하냐며 쓴소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이 남겨준 자연과 토종 종자를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갑니다.

“혼자서라도 이 가치를 지켜내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한 명씩 늘어나게 되고, 언젠가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고유의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중한 가치로 정성스럽게 키워낸 토종 작물이 이제는 소비자에게 더 친근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The Taste Edit 171 로컬에디터 홍아인

본 콘텐츠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테이스트 에디트’는 청양 로컬에디터 육성프로그램입니다. ‘나의 부캐, 로컬에디터’라는 부제처럼 꼭 지역에 이주하지 않더라도 주말을 활용해 지역과 관계 맺고 현장취재,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the-taste-cheo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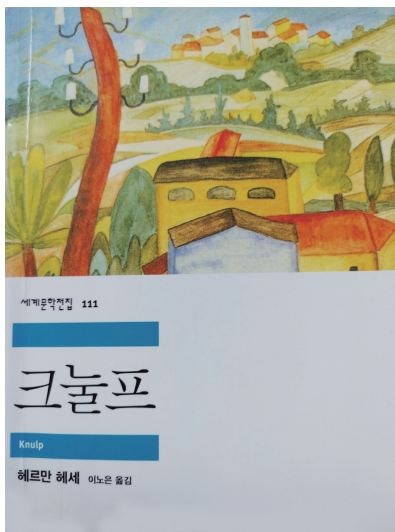
용/세/글/방

여름에 읽기 좋은 책

헤르만 헤세, 크눌프



독자기고



“다시 열이 올라 잠시 머물 곳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역 어느 도시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줄 곳은 쉽게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그 점에 대해 그가 느끼는 자부심은 특별해서, 만일 누구든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영예로 여겨야 할 정도였다.”

이 이야기는 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저녁 문이 잠겨 있는 무두장이의 집을 두드리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 보았던 마을의 풍경, 사

색과 자연에 대한 애정,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궁색하지 않은 방랑자의 이야기다.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지만, 1장을 읽는 내내 나는 그가 떠돌이이며 노숙인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 그가 모든 작업용어와 식별 신호들을 익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한 대장장이처럼, 크눌프가 방랑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크눌프가 옳았다. 그는 자신의 천성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따라 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본인의 친구로 삼았으며 모든 소녀와 여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매일 매일을 일요일처럼 살았다.”

그는 걱정 없이 우아하고 화려했으며 당당하게 살았다. 선을 넘지 않는 방랑자, 유혹을 거절하는 그만의 방

식, 돈이 필요할 때의 당당함, 좋고 싫음,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부터의 단호함, 그리하여 그가 머문 곳은 빛나 보이며 아름답다. 그와 관계된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비옥한 지역을 친구와 여행한 이야기, 회상을 통해 사색적인 삶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두려움도 항상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가 꿈에서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질 때, 보이는 것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는 지치고 슬프고 불쾌함 속에서 깨어나 자신의 삶을 봤을 것이다. 그는 종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괴로워한다. 신은 그의 삶이 의미 있었음을 말해 준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어요”

그의 생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긋남으로 시작된 것이나 구속과 집착을 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주한 모든 것에 진심이였으며 애정이었으므로 삶이 충분하고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크눌프는 흰 눈에 덮여 잠이 든다.

나는 크눌프의 죽음으로 며칠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에 깊은 구멍을 본다. 어쨌든 크눌프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지극히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들로부터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문득 외롭고 슬퍼, ‘그것이 사람의 길이 아닐까?’라지만 홀로 떠나고 싶은 강렬한 유혹도 있다.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나의 언어들의 세계관에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지, 한번은 다시 고 침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무덤고 그래서 지루하기도 할 여름, 『크눌프』라는 그늘에 앉아 책 휴가를 떠나보길 바란다.

〈윤선숙(비봉면)〉

“ 사회적경제 특화 업종별 교육생 모집!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사회적경제팀
문의: 041-943-9913

2023년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카데미[사경배움터]의 사회적경제 특화업종별 교육생 모집이 시작되었다.

사경배움터 사회적경제 특화업종별 교류를 통하여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및 청양군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업종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녹색식품, 녹색자원 및 에너지, 녹색순환경제와 같이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및 청양군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3개의 업종별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체 교육과정 70%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사경배움터를 통하여 새로운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바란다.



2023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카데미

사경배움터 특화 업종별 교육

녹색식품
녹색자원 에너지
녹색순환경제

신청 QR코드

모집기간 2023. 6. 21.(수) ~ 7. 10.(월) 17시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교육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예정자 또는 종사자 **신청문의**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 041-943-9913

교육장소 청양혁신플랫폼 2층 (청양읍 칠갑산로8길 17)

교육내용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및 청양군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3개 분야인 <녹색식품, 녹색자원 에너지, 녹색순환경제> 업종별 역량 강화 교육

회차	일시	교육 내용	강사
1회	7/13(목) 9:00~17:00	-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견학 및 탐방 - 원도심 투어 및 사회적경제기업 방문	- 김다현(전민대목스 대표) - 박미선(호남다원농업진흥청 대표) - 박형철(군산문화재단 대표)
2회	7/20(목) 13:30~16:30	-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현황	- 김재홍(가천대학교 교수) - 신병철(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
3회	7/27(목) 13:30~16:30	- 분야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 협력사업 구성	- 조대성(충청남도농업진흥청 대표이사) - 안병철(충남농업기술원농업경영지원과장) - 박금희(충남농업기술원농업경영지원과장)
4회	8/10(목) 13:30~17:30	- 사회적경제 토크 콘서트 - 협력사업 발표 심사 수료식 (소액 사업에 지원)	- 양종나(충청남도농업진흥청 대표이사) - 서승현(충청남도농업진흥청 대표이사) - 홍승익(충청남도농업진흥청 대표이사)

주최 주관 청양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협력 청양군

“ 주민소양교육, 2023 마을대학 수강생 모집!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팀
문의: 041-943-9911

2023년 지역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양교육'마을대학' 수강생 모집이 시작되었다.

마을대학을 통하여 지역리더로서 역량 배양과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 주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양교육으로 기획되어있다. 교육 과정은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 1회, 7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진행된다. 전체 교육과정 70%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2023 마을대학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3. 6. 26. (월) ~ 7. 10. (월) 17시까지

교육장소 청양읍 칠갑산로8길 17, 혁신플랫폼 와유 1층

교육대상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청양군민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구글폼) 또는 오프라인(방문) 접수

- 구글폼 : QR코드를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청양혁신플랫폼 와유2층

신청문의 ☎ 041-941-9911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만들기팀)

회차	일시	교육내용	강사
1회	7.13.(목) 18:30~21:30	오라엔터테인먼트, 지역성이 입문	배아송(단양군 청년네트워크 활동가)
2회	7.20.(목) 18:30~21:30	행복한 마을살이	김시원(논산 재문2리 마을)
3회	7.27.(목) 18:30~21:30	농촌의 환경과 지속가능성	조아라(세종 환경교육연구소)
4회	8.10.(목) 18:30~21:30	농촌의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송유심(충북 옥천군의원)
5회	8.12.(토) 09:00~17:00	읍면단위 활성화 사례 탐방	신소희(장곡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정민철(예산 협업농장 대표) 정태희(예산은농 대표)
6회	8.17.(목) 18:30~21:30	농촌지역 활동가	이선영(부여 그림책마을 사무장)
7회	8.24.(목) 18:30~21:30	총강워크숍 및 수료식	박현미(NGF연구소 나사 대표)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